■북구 갑 조오섭

광주 최대 경합지 승리 '풀뿌리 정치인'

"민주정권 재창출 반드시 성공"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당선자가 15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부인 최유정씨와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

광주지역 8곳 선거구 중에서 가장 경합지역으로 꼽혔던 광주 북구갑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51) 후보가 무소속 김경진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됐다.

조 당선자는 당내 경선 초기부터 광주 북구갑에 대한 전략공천설이 떠돌면서 마음을 졸였고, 공천을 받은 뒤에도 가장 경쟁력 있는 현역 김경진 의원과 치열한 승부를 벌이느라 하루 24시간이 부족했다.

담양 출신으로 전남대 운동권 출신인 조 당선자는 대학 졸업 후 노동운동에 투신했다가 제6대 광주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첫 정치에 입문했다. 그는 6·7대 광주시의원을 지낸 경험 탓에 '풀뿌리' 정치인으로 꼽힌다.

소통과 화합을 중요시하는 조 당선자는 시의회 의정활동 과정에도 동료 의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신뢰를 받아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광주시당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고, 이를 계기로 대통령 직속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으로도 활동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와 지역균형 발전 전문가로도 꼽힌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지역위원장과 중앙당 부대변인 등을 맡아 활동하는 등 중앙당 인맥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 당선자는 당선 소감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중단되서는 안된다. 2022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주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데 국민이 화답했고, 광주의 명령이었다"면서 "이제 싸우는 국회를 멈추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문재인 대통령 후반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의로운 나라,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민주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신·전남방직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북구 유치, AI인공지능산업 1조원 사업, 4차산업 교육허브 북구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목포 김원이

정치 9단 박지원 꺾은 '뚝심의 정치'

"새 목포 만들기 위해 온 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 목포 김원이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 되자 환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호남정치 1번지'라 불리는 목포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51)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4·15 총선에서 광주·전남 최대 격전지로 꼽히면서 전국적 관심의 대상이 된 목포에서 김 후보는 민생당 박지원 후보를 간발의 차이로 꺾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김 당선자는 높은 민주당 지지율을 바탕으로 '새로운 목포·새로운 목포'를 내세워 시골장터부터 도심 한복판까지 샅샅이 훑으며 표심을 자극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는 선거 막바지에 민주당의 '동남권 의과대학 유치'와 관련해 수세에 몰리기도 했다. 특히 경쟁 상대인 박 후보의 막강한 조직력과 자타공인 정치 9단이라는 강점 등 넘어야할 산도 많았다.

하지만 김 후보는 막판까지 뚝심 있게 유권자 속으로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 목포 시민들에게 신임을 받는 데 성공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방행정기관·중앙정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과 그동안 축적한 중앙 인적네트워크도 이번 선거에서 승리를 이끄는데 한 몫 했다는 관측이다.

김 후보는 "박지원 후보와 윤소하 후보와 같은 버거운 후보들을 이길 수 있던 것은 새로운 목포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다"면서 "그 목포시민의 열의가 나에게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히 "새로운 목포를 만들기 위한 동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에 경합을 펼친 두 후보님들의 좋은 공약과 짐을 모두 짊어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현실정치를 배웠고, 김근태 의원에게는 양심과 신뢰를, 박원순 시장에게는 소통과 참여·협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람을 배웠다"면서 "이 배움을 모두 녹여내 김원이의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목포=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소병철

전관예우 거부…與 인재영입 4호

"대립 끝…화합의 시대 열 것"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순천 당선자가 15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부인과 환호하고 있다.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62) 후보가 무소속 노관규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소 당선자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네 번째 인재로, 이 선거구에 전략공천됐다. 민주당의 전략공천과 순천 해룡면 선거구 쪼개기로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민주당·문재인 대통령 바람'과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재선 순천시장을 지낸 노 후보를 따돌리고 제21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그는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 검찰을 퇴직한 뒤 대형 로펌의 영입 제안을 거절하고 변호사 개업도 하지 않아 '전관예우' 관행을 끊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그의 전관예우 거부는 고위직 검찰 간부로는 최초여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대신 농협대학교와 순천대학교에서 교수로 일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 꼽히기도 했고, 검찰 퇴임후 정치권에서 영입 제안을 받기도 했다.

소 당선자는 검찰개혁을 '시대의 소명'이라고 밝혀왔던 만큼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검찰을 퇴임한 뒤 정치권에서 여러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제안에 응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최근 검찰개혁이 국민적 화두로 등장해 여러 고민을 하던 참에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받고 정치권 입문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 당선자는 "우선 순천시민들의 선택에 감사하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순천의 변화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분열과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순천을 위해 땀 흘린 모든 경쟁자와 손을 잡고 상생과 화합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천 선거구 원상회복과 분구 추진, 전남 동남권 의대 설립, 여순사건 특별법 과 2023 순천만국제박람회 특별법 제정 등 정책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민생·개혁 입법,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일하는 국회' 실현

■ 5월 첫발 떼는 21대 국회

4·15 총선에서 선출된 국회의원 300명이 꾸려 갈 제21대 국회는 오는 5월 30일 4년 임기의 첫발을 뗀다. 지리멸렬한 정쟁과 낮은 법안 처리율로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까지 썼던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상당히 많은 과제를 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대 국회는 당장 총선 다음날인 16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에서 밀릴 법안들을 처리하고 임기를 마무리 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법안 처리 등에 특히 힘을 쏟으면서 남은 미처리 법안도 가능한 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상당수 법안이 결국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민생·개혁법안을 다시 입법하는 것뿐 아니라 코로나19 경제 위기 대응, '일하는 국회' 실현 등의 당면 과제를 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급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닥쳐올 경제 위기의 파고를 넘는 것이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3차 추경' 편성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위기 기업·노동자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한 입법 대책 마련에 착수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서 마이너스 성장이 점쳐지고 있어 정부는 물론 국회에서 경기 부양책 마련에 우선 부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대 국회에서 큰 성과를 내지 못한 규제 개혁, 경제활성화 입법도 숙제다. 당장의 경기 대응을 넘어 한국 경제 체질을 바꿀 방안을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서비스경제발전법, 사회적경제 지원법 등 민생·경제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지 알 수 없기에 21대 국회는 관련 법안들을 새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광주 65.9%·전남 67.8%…28년만에 최고치

■ 광주전남 투표율

광주·전남 국회의원 총선 투표율이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광주는 65.9%, 전남은 67.8%의 잠정 투표율(사전투표+본투표)을 기록했다.

광주는 선거인 120만8263명 중 79만6517명, 전남은 159만2850명 중 107만9806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전국 평균 64.3%를 웃도는 수치로, 4년 전 20대 총선 최종 투표율인 광주 61.6%, 전남 63.7% 보다도 높은 수치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 당시 광주 70.1%, 전남 75.4% 등 '마의 70%'를 넘긴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역대 광주지역 총선 투표율은 15대 64.5%, 16대 54%, 17대 60.2%, 18대 42.4%, 19대 52.7%, 20대 61.6%, 전남은 15대 69.7%, 16대 66.8%, 17대 63.4%, 18대 50.0%, 19대 56.7%, 20대 63.7%를 기록했다.

사전투표가 제도적으로 정착된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사전투표율은 전남이 35.77%를 기록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도 32.18%를 기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